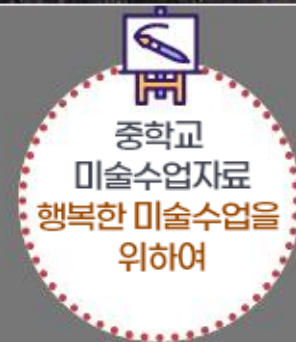




#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

그림으로 그리스로마 신화 읽기 1. *같은 소재  
다른 그림*

자료제작 : 전성아 <http://arteducation.kr>



미노스 왕이 다스리던 크레타 왕국에는  
아테네 출신 발명가 다이달로스가 만든  
미로가 있었고, 그 미로에는  
왕비가 낳은 식인 괴물이며 반인 반수인  
미노타우로스가 갇혀 있었다.

그리고 몇 해 마다 아테네의 처녀와 총각  
각 7명씩이 크레타에  
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될  
제물로 바쳐졌었다.



## 같은 소재 다른 그림

[테세우스가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 
실을 주는 아리아드네]  
필리포 펠라지오 팔라지  
캔버스에 유채/ 1914년경/  
볼로냐 현대미술관

아리아드네는 크레타왕국의 공주,  
미노스 왕의 딸이다.  
반인 반수인 미노타우로스의 제물로  
끌려온 소년과 소녀들 중  
용감하고 아름다운 미소년  
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에게  
잡아 먹힐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된다.

그리고 그녀는  
아버지인 미노스 왕 몰래 테세우스에게  
실타래를 건네준다.

"들어갈때 이 실타래를  
문고리에 걸어두시고,  
빠져 나올때 그 실을 따라  
빠져나오세요."



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 / 장 밥티스트 르노

# 같은 소재 다른 그림

테세우스에게 실타래는 주어 돕는 아리아드네  
요한 하인리히 티슈바인

어찌려고 그러는 걸까?  
그녀는 이제  
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게  
되는 것인데,,,





과연 테세우스는  
그녀의 이런 사랑에  
보답하게 될까?

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  
니콜로 밤비니 (연대미상)  
© Wikimedia Commons



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 
미로를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 
아리아드네의 앞뒤를 안가린 사랑이었다.  
그러나...

실타래 덕분에 무사히 빠져 나온 테세우스는  
조국을 배신한 아리아드네와  
배를 타고 크레타를 떠나지만,





## 같은 소재 다른 그림

닉소스 섬에서 잠시 체류하는 던 중  
아리아드네가 잠이 잠든 사이,  
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 
두고 떠나버린다.

배는 이미 떠나서  
화면 밖에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 
보는 사람을  
더욱 안타깝게 한다.

울고 있는 사랑의 신  
에로스



[테세우스가 버린 아리아드네]  
안젤리카 카우프만 / 1774



[아리아드네]

존 윌리엄 워터하우스

캔버스에 유채 / 91x151cm / 1898

같은 소재  
다른 그림

워터하우스의 그림을 보면, 그녀는 지금 어떤 단꿈을 꾸고 있을까?  
어서 일어나라고, 그가 떠나고 있다고 흔들어 깨우고 싶을 만큼 사실적으로 다가온다.

[닉소스의 아리아드네] 에블린 드 몰건 / 91x151cm / 1877

혼자 남아 슬피 울고 있는 아리아드네  
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?  
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 
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?